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신

정중해 보성군수

녹차·관광산업 활성화 전력

정중해 보성군수는 올해 군정 중점과제를 지역균형 발전의 큰 틀 위에서 '농어업인 소득향상과 녹차·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두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농어업 비중이 64%를 넘기 때문에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농민·농업·농촌이 상생 발전하는 친환경 농어업육성과 고소득·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수익 작물재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인프라도 조성한다. 정 군수는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지금 개발중인 조성농공단지의 분양을 올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하는 한편 일반 산업단지 개발 등 유치가 확정된 각종 민간투자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차식물원 조성

또한 글로벌 표준 기상관측소와 연계한 기후 관련산업 육성과 마그네슘과 연관된 신소재부품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농·식품 가공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의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보성읍 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벌교읍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보성사당 상품권사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군은 지역을 ▲행정·문화 중심지구 ▲농업·레포츠 관광지구 ▲다기능 복합 관광지구 ▲주요호수 등 4대 권역별로 나누어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서편제 관소리 테마파크' 조성과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고 건강한 보성을 가꾸어가기로 했다.

정 군수는 "새해는 '도약과 성장'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농·특산물 유통센터 설치

또한 농·특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해 농업인들이 힘들게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 '지리적표시' 등록 보유 지자체로서 보성녹차를 비롯해 보성삼배, 벌교꼬막, 웅치올벼쌀 등 '지리적 표시' 등록 농수산물인 장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작목과 농·특산물 가공식품 산업도 집중육성한다.

군은 국내 경기회복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정부의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 확정 등을 발판 삼아 지역 관광산업 및 보성녹차 산업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차와 개펄을 이용한 사계절 녹색관광 상품 개발 ▲지역축제의 업그레이드 ▲자체 결연단체와 관광협회 체결 ▲해

양·산림휴양 관광기반 구축으로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관광녹차 생태공원과 비봉 공룡공원, 산립 생태문화체험단지, 벌교꼬막 웰빙센터, 해상복합 낚시공원 조성 등 관광 개발사업을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태백산맥 문화관'과 '한국차 박물관' 등 16개소의 각종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창조적 관리·운영과 이미 조성된 축구장, 조성중인 야구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사계절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녹차수도의 명성에 걸맞도록 보성녹차 명품화와 수출·연관산업 육성에 주력하면서 ▲세계 차식물원 조성 ▲사계절 차 체험장 설치 ▲녹차를 활용한 환경성질한 치유센터 건립 등 녹차와 연계한 관광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전남 동부권

여수 섬마을 어린이들 박람회 주제가 만든다

조직위, 20개 초등학교 콘테스트 열어 선정

세계 10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이벤트인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작곡에 섬마을 소년·소녀들이 참여한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여수지역 섬 20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전문 작곡가의 지원을 받아 학교별로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를 각각 만들고, 조직위는 이들 주제를 대상으로 5월 12일 박람회 개최 1년전 행사때 합창 콘테스트를 거쳐 당선 곡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의 주제가 세계적인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대부분 제작해 왔으나,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는 소의

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제작을 접목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직위는 주제 제작의 주요 과정들은 영상에 담아 이후 섬마을 소년·소녀의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들을 전 국민과 나눌 계획이다.

조직위는 이번 주제가 제작사업이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고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는 특별사업임을 감안, 어린이 예술교육 관련업체와 각종 이벤트 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조직위 김광용 공영행사과장은 "박람회 개최지 여수의 섬 소년·소녀들이 참여한 주제곡을 만드는 것은 해양박람회로서의 주제뿐만 아니라 참여자향적인 박람회 취지에 부합하고 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기자노트

지난해 6·2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점에 집행부의 발목잡기만 한 다는 여론이다.

외연수를 다녀온 것이다. 이번 해외연수는 대만 국제원예박람회를 참관하는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관광성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6대의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로 지출된 금액이 6000여 만원에 이른다. 6대의회가 시작

무엇이 민의 위한 의정 활동인가

합회의 홍보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가장 시급한 조직위구성에 필요한 5000만원마저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반면 본인들이 쓰는 경비에는 관대했다. 2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고급 한정식집에서 송년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또 의원들간 불협화음과 막달도 여전히 의원들의 자질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 6개월의 임기도 '보스'의 임기도 '보스'의 의정활동을 한다는



김은중 <동부취재본부 기자>

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26~31일 6일간 중국과 대만으로 의정단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순천시의회는 꼭 필요한 예산들은 최대한 삭감을 시켜놓고 겨우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외유성' 해

평을 받는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희망과 비전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신묘년을 맞아 토가의 지혜와 부지런함을 배워 '무엇이 민의 위한 의정활동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할 때이다. /ejkim@kwangju.co.kr

전 북

공공미술관이 된 군산내항

개항 111년 스토리 담긴 미술품 곳곳 설치 호응



군산시내 곳곳에 공공 미술작품이 세워지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사)한국미술협회와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2010 마을미술프로젝트-테마이야기' 부문 공모에 응모해 최종 당선된 '길 111 in 군산'팀이 장미동 내항 부근 진포 해양테마공원 옆 폐철

도 플랫폼 자리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했다.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이 지원된 이번 사업은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길 111 in 군산' 팀(대표 김동욱, 총감독 임영경, 참여작가 김영웅·고보연·김상호·유기종)은 군산지역 작가 3인과 서울지역 작가 3인이 뜻을 합쳐 모인 프로젝트 팀으로 군산개항 111년을 맞아 그 스토

에 담긴 다양한 역사이야기들을 다채로운 소재로 제작된 작품 속에 녹여내 '스토리텔링이 살아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쌀 수탈의 길로,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지로, 새만금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길로서의 군산의 이야기를 담아 '길 111 in 군산'이라는 테마로 조성된 아트파크(Art Park)는 작품 제작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의를 높였다.

또한 올해 완공예정인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발전사업'과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과도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완공 후에는 설치효과가 더욱 커지고 원도성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산시는 14일 오후 2시 시 관계자와 참여작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과 작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청년취업자-기업 만남 주선

정읍시가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참여기업 공모를 받고 있다. 시는 공모에 응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적격 참여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청년취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후 기업체와 청년취업자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이 만남을 통해 기업체에서

취업자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억1600만원을 투자해 33명을 선발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165명의 취업을 앞선할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청년취업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6개월동안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 6개월간 1인당 80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겨울기름 선유도... 생활용수 도박

군산시 선유도의 겨울기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파도도 시장에 빠지지 폐로이더가 덩어려 트럭을 고집어 내고 있다. 510여 가구가 거주하는 무녀도와 인근 선유도는 두 달째 이어지는 겨울 기름으로 대부분 생활용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산시 선유도의 겨울기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파도도 결정된 급수선 대신 바지선에 실려온 생수통을 실은 트럭이 모래사장에 빠지지 폐로이더가 덩어려 트럭을 고집어 내고 있다. 510여 가구가 거주하는 무녀도와 인근 선유도는 두 달째 이어지는 겨울 기름으로 대부분 생활용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주대에 국제한식조리학교

도, 120억 투입 2012년 개교...전문조리사 양성

전북도는 한식 전문조리사 양성을 위해 전주대에 국제한식조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전북도는 국비 50억원 등 총 120억 원을 들여 올해부터 전주대 본관 4~5층을 리모델링해 한식 조리학교와 부설 한식당, 한식문화교육관 등을 오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오는 2012년 개교 예정인 한식조리학교는 단기(1~3주)과정을 비롯해 중급(1년)과 고급(2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호텔이나 외식업체 조리사, 지배인, 외국파견 전문한식조리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학교의 강사로는 국내외 특급호텔 조리사와 외식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도는 14일 전주대와 전주시, 비빔밥 세계화 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식조리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한식문화재단을 발족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식조리학교는 한식의 품격을 높여 한식세계화를 이끌어갈 전문 조리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졸업생들이 특급호텔이나 국내의 고급 한식당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춘향골 쌀' 수출 행진

市, 영국·오스트리아 각각 19t 납품

남원시 대표작품 중 하나인 '춘향골 쌀'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시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춘향골 쌀'이 지난해 뉴질랜드와 영국에 110t(20만 달러)을 수출한데 이어 영국과 오스트리아에 각각 19t을 수출해 쌀 재배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국과 오스트리아 수출은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결과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는 계기가 됐다. '춘향골 쌀'은 남원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당일 도정, 선적해

순창 장류전문가 교육생 수료

순창군은 지난 12일 전북대 순창분원에서 '3기 장류현장형 전문인력양성' 전문 심화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양성과정은 지난해 10월 개강해 매주 1~2일씩 총 100시간에 걸쳐 순창의 장류제조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거쳤다. 이번 교육을 통해 47명이 장류 전문가로 거듭났으며, 이 가운데 윤석탁(57)씨와 정홍숙(57)씨 등 39명이 전통장류 제조사 1·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순창으로 결혼해 온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교육수료 후 지역 기업체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인형 군수는 "앞으로도 고추장, 청국장, 장아찌 등 순창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lee@

미질이 좋은 상태로 해외소비자 식탁에 공급되고 있어 영국과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독일,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수출량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남원시는 지속적인 쌀 수출확대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와 해외 대형 유통매장 판촉행사 실시,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골 쌀이 수출길로 이어지면서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게 됐다"며 "올해도 250여t의 쌀을 수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